

JAPAN

일본 여성과의
결혼활동 매뉴얼



■ 먼저

이 매뉴얼은 외국인 남성 여러분에게 일본 여성과의 교제, 결혼을 실현하시도록 돕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또한, 지원으로서 심리카운셀러에 의한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과 이메일 지원을 병행하심으로써, 실제 일본 여성과의 교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과의 교제, 결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여성과의 접점을 갖고 싶어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 남성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의 장벽이 있는 일본 여성에게는그로 인해 경계심이나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에게 외국인의 존재는 관광객 등 일상적으로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존재가 자신에게로 향할 때,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있듯이, 일본에도 일본만의 문화와 관습이 있습니다.

그 문화나 관습을 벗어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본 여성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먼저 일본의 문화와 관습을 알고,그리고 일본 여성을 알아감으로써,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교제나 결혼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영주할 생각을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화, 관습에 녹아들 수 있다면, 일본 여성의 마음에도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 일본 여성은 다른 나라의 여성보다도 평화로우며, 친절하고 헌신적인 멋진 여성들입니다.

이 매뉴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본 여성에게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제 일본 여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일본 여성의 여성 심리에 기초하여 매뉴얼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이나 서적에서 얻을 수 없는 리얼한 정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일본의 문화와 관습을이해하고,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1장: 일본의 문화와 습관을 알다

- 일본인은 외국인을 피하는 섬나라 정서의 민족이다.
- 동조압력의 문화.
- 남녀간의 격차사회, 젠더 문제.

■제2장: 언어의 벽

- 일본어에 의존하는 내향적인 민족.
-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잠재적인 의심의 눈초리.
- 겸손한성품이 일본어 이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장: 일본인 여성의 특성

- 일본인 여성은 남성의 배경을 알아보려 한다.
- 일본인 여성은 청결함의 덩어리다.
- '귀엽다'는 문화.

■제4장: 외국인 남성에 대한 인상과 선입견

- 식문화의 차이와, 체취의 벽.
- 노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 상대방의 가족관계, 거리감을 의식한다.

■일본인 여성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법

1. 일본인 여성과의 접점을 갖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개선부터 시작한다.
2. '손수건'은 항상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3. 말을 걸 때는 모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의 '단어'만을 사용한다.
4. 일본인 여성과의 접점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한 커뮤니티의 장에서 접근한다.
5. 대화 중에서는 가능한 한, 남성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6. 교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한다.

■제1장: 일본의 문화와 습관 알기

■일본인은 외국인을 피하는 섬나라 기질의 민족

일본은 세계에서 드문 독특한 문화와 습관이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며, 그 기반에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의 일본어로 "おもてなし"라는 문화가 있다.

지역 단위로도 문화와 습관이 다르며, 그것은 음식 문화에서도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생활습관을 말하자면, 세계를 봤을 때, 여러 외국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서 생활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일본의 경우, 거의 100%가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

그것은 일본인이 바닥에 앉는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 일본에는 옛날부터 바닥재로 "타타미"라는 "이구사"라는 식물을 건조, 가공한 것을 사용해왔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목재를 바닥재로 하는 곳도 많지만, 바닥에 앉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모두가 "타타미"에서 생활해본 적이 있다고 할 만큼 일본의 생활습관에 뿌리내려 있다.

"이구사" 식물에는 살균작용, 향균작용 등이 있고, 새로운 "타타미"에는 봄을 느끼게 하는 향기가 나고 위생적인 환경을 항상유지하며, 많은 일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신발을 신은 채로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은 흙이나 먼지를 방에 가져오게 되므로, 흙먼지로의 생활은 청결감에 민감한 일본인에게 뿌리내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혼자 사는 경우에도 바닥이 마루일지라도, 부모의 집에 돌아가면 방에 타타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서양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00년대에 들어서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서양문화가 일본에 들어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을 일본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鎖国制度(사코쿠 제도)"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현대에서 말하자면 법률과 같은 존재였다.

말의 차이나 피부의 색, 눈의 색이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을 어느 의미에서는 당시의 일본인들은 두려웠을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보는 이국인의 모습을 선입견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일본인 이 외를 신용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또한, 나라를 통치하던 당시의 조정이나 막부 자체가, 그러한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일반 국민에게 스며들어 갔다.

나라와 나라가 인접해 있는 여러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였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접하는 환경이 없었고, 그 결과 일본 고유의 문화, 습관이 형성되어 왔다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결국 1억 2천만의 인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문화만으로 나라가 성장해 왔다. 태평양 전쟁 종결 후에는 패전국에 빠졌지만, 지금까지의 문화와 습관이, 다른 나라의 협력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해왔던 "물건 만들기 문화"가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필요성이 그다지 없었다. 그 문화가 아직도 풍속으로 남아있다.

또한 일본인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회화력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한, 문법을 중심으로 한 영어 교육의 실패가, 오늘날의 영어에 대한 알레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 여행객도 늘어나고 있어, 젊은 일본인 사이에서는 영어를 배우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있다.

특히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일본은 동조압력의 문화가 있다.

일본에는 '동조압력'의 문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집단행동'을 선호하는 기질과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진 국가이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다. 진도7을 넘는 거대 지진이 발생하고, 그 후의 쓰나미 피해로 3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 전국의 국민들의 마음이 떨리고, 공포와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다.

그 지진 직후, 자위대와 구조대,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힘을 합쳐 생존한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을 배급하고 있었는데, 거대지진 직후의 주민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 전체가 잔해로 변한 상황 속에서, 폭동도 없이, 그저 조용히 서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패닉에 빠지고, 절도나 폭동 등의 범죄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줄을 서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줄을 선다는 문화가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민족이라는 것이 엿보인다. 그것이 일본인으로서의 '미덕'일지도 모른다. 당시 배급을 줄 서서 기다리는 일본인의 영상이 세계 각지에 흘러나갔다. 외국인들에게는 이상한 광경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인에게는 그런면이 있다.

또한 일본인의 특징으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풍조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만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발표한 의견이나 생각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의식하는 국민성이 있다.

익숙한 관계성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성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일도 있다.

이러한 국민성 속에서,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는 없는 부러운 의식이 있으면서도, 그 감각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많다.

감각의 차이는 일본인 여성과의 교제나 결혼의 장애가 되므로, 앞으로의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간의 격차 사회와 젠더 격차 지수 문제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는 남녀 격차의 현상을 각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Global Gender Gap Report" (세계 남녀 격차 보고서) 2023년 판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125위로, 전년도 (146개국 중 116위)에서 9랭크 하락하였다. 순위는 2006년의 공표 시작 이래 최저였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가 세계 최저 클래스의 138위로, 남녀 격차가 메워져 있지 않음이 다시금 나타났다.

1위는 14년 연속으로 아이슬란드였으나, 이 수치를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는 남녀가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살펴보면, 명백한 남녀 격차가 드러나 있다.

이는 남녀 간의 생애 임금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의 개인 자산은 국 전체로 1,200조 엔이며, 인구가 1억 2,000만명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볼 때 국민 한명당 1,000만 엔의 자산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젊은 세대의 모두가 개인 자산 1,000만 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국에 비해 개인 자산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의 격차가 남녀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대부분 저축이나 자산 운용에 적극적이다.

여기서 일본 여성의 습성을 전하자면, 사회 전체가 남성 우위의 분위기에 물들어 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또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 나갈 것인가. 위급할 때, 누구로부터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한 잠재적 의식이 사회에 대한 경계심이나 의심을 낳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인 이상으로 경계심이나 의심을 낳고 있다.

이 의식을 클리어 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남성으로서, 일본 여성에 대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같은 눈높이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가능하다면, 점차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문화나 습관의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인은, 남성도 여성도 외국인과 관계없이, 소재가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이 높지만, 한 번 일본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후의 신뢰 관계는 한층 높아진다. 그러한 문화가 있다.

■ 제2장: 언어의 장벽

■ 일본어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내향적인 민족

일본인들은 일본어만으로 충분히 생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이유는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은 섬나라에 1억 2,000만명의 국민이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국내총생산(GDP)은

독일에 추월당하고 있지만, 1억 2,000만명의 국민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국내만으로도 충분히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과 같은 수출 중심의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 내수를 위한 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 없이도 충분히 생활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당연히,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는, 최근에는 일본인도 영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만의 생활 습관이나 음식문화를 선호하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것이 일본인의 성격 중 하나이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에 스마트폰이나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그곳에서 도난에 직면할 확률은 거의 없다.

남의 것을 훔치려는 의식이 없다.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문화가 있다.

만약, 테이블에 놓인 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 한다면, 레스토랑 직원의 눈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범죄 예방에 연결되고 있다.

일본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며,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소수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인 여성의 외국인에 대한 잠재적인 의심과 경계심

일본인이 외국인을 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어 외의 언어 습득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어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순수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민족이라는 것이다.

일본인은 내향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언어의 장벽이 있어, 성격적으로도 원래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국민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좋은 풍조는 아니지만, 좋든 싫든, 그런 문화가 뿌리 박혀 있다.

세 번째는 외국인에게 많이 보이는 '타투'이다. '타투'는 여러 외국에서는 흔한 광경의 하나로 일본인도 이해하고 있지만, 일본인에게 '타투'는 반사회세력인 '야쿠자'나 외국에서라면 '갱'과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뿌리 박혀 있다.

예를 들어, 눈앞에 평범한 외국인이 관광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고, 팔에 타투가 있다면, 일본인 대부분은 '무서운 존재인가?'라는 잠재적인 심리가 작동한다.

물론 외국인을 편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야쿠자'라는 존재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일본어로는 '이레즈미'라고 표현하지만, '타투' = '일반 사회에서 벗어난 인간'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 거기에 경계심과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 문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일본인에게는 외국인의 타투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인 남성이 타투를 하고 있다면, 같은 일본인이라도 경계를 할 것이지만, 외국인 여행자에게 타투가 있어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일본인 여성에게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대부분은 일본인 남성보다 체격이 커서, 그 존재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 여성과의 접점을 가지는 의미에서, 편견이 아니라, 일본에는 이러한 역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겸손한 성격이 일본어 외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인은 내향적이고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눈길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수줍음이 많다.

한편, 언어의 장벽 때문에 외국인에게 말을 걸릴 경우, 일관되게 피하는 의식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마음가짐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것은 일본인 전체의 경향이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당당하게 소통하고 싶어하지만, 소통을 어려워하는 일본인에게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피하는 경향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경계심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도 그 중 하나이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진다, 웃음" 그것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본인의 습성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 남성이, 조금씩의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본어로의 대화가 아니라, '단어'만으로도 일본 여성의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유창한 영어로 여성에게 말을 걸며, "죄송합니다, 도쿄역의 개찰구는 어느 쪽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영어를 할 수 없는 일본 여성들 중 대부분은 눈길을 맞추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처음 접근할 때, 예를 들어, 일본어 단어로 '죄송합니다', '도쿄역' 이 두 단어가 나오면, 그 후에는 그 자리의분위기로, 눈앞의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일본 여성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단어로 대충 전달되어 온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본인의 경계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피해왔던 마음가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라고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다.

이것은 일본인의 과도한 선입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겸손한 일본 여성 앞에서는 선입견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일본 여성은 경계심의 덩어리임을 이해하고, 천천히 일본어 단어를 두세 개 말함으로써, 그 자리의 상황은 일순간에 바뀔 것이다.

■제3장: 일본 여성의 특성

■일본 여성은 남성의 배경을 알아보려 한다

일본 여성의 경향으로서 남성의 배경을 알아보려 한다. 소상이 알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경계심이 매우 강하다.

여러 외국의 여성들도 같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여성의 경우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본 사회의 풍토로서 여성은 항상 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그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싹트고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는 여성을 멸시하는 경향이 문화로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고려하는 나이의 여성의 부모 세대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에게 헌신하는 환경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게 여겨지는 시대가 존재했다. 여성도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다.

배가 고프더라도, 아버지가 일에서 돌아올 때까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거나, 또한 일본에는 목욕을 할 때 샤워가 아니라 욕조에 잠긴다는 풍습이 있다.

일본어에서는 "오목조(お風呂)"라고 표현하지만, 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부터 "오목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들어가고, 어머니는 항상 마지막이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위이고 아내는 아래라는 공기가 정착되어 있다.

물론 샤워만을 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아침에는 샤워로도 충분하지만, 밤에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욕조에 잠겨 시간을 즐긴다.

가족이라면, 아이가 5세 정도까지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오목조"에 들어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그곳에서 부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나눈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인의 문화로서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는 풍습이다.

매일의 일상에서, 집안일 등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 것으로,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여성은 남성을 받치는 것이라고 주입되어 있는 역사가 있다.

지금의 시대에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집안일은 부부가 협력하는 의식이 당연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가정에서든 일본의 경우, 식사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혼을 의식하는 세대의 일본 여성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남성에 대한 눈길은 엄격하다.

즉, 그녀들의 본심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도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지 여부, 그 한 점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연애나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가 매칭 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물론 일본에서도 매칭 앱은 많은 여성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외국과의 큰 차이점이 있으며 중요한 포인트도 되는데, 앱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남성의 정보는 자기신고가 되므로 여성의 경계심은 매우 높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 여성도 앱의 신청을 하여 회원이 되지만, 회원 후의 실제 이용자는 앱의 입회자 전체의 약 30% 정도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매칭 앱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남성과의 만남이 실현 가능하므로 입구의 단계에서는 장벽이 낮지만, 일단 이용하려고 하면불안감이 우선되어 적극적으로 앱을 이용하는 일본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Marriage agency의 존재다.

나 자신도 심리 카운셀러의 스킬을 활용하여 Marriage agency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칭 앱과의 큰 차이점은 입회시남성도 여성도 공적 증명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이나 소득 증명서, 미혼 증명서의 제시, 그 외에도 근무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 아무튼 제출하는 서류가 많다. 개인 자산이나 가족 구성도 운영 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제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운영 회사만이 파악하고 있으므로 상대 여성에게 정보가 새어 나가는 일은 없다.

확실한 정보로서 제대로 미혼인지, 소득에 허위가 없는지, 신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등, 그런 정보가 담보되어 있기때문에 일본 여성이 안심하고 남성 회원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어 최근에는 여러 외국의 외국인남성으로부터의 입회 희망자가 늘고 있다.

입구의 장벽은 높지만, 그걸 넘어서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의 확실성이 높아진다.

또한, Marriage agency의 경우에는 교제 중의 육체 관계가 금지되어 있으며, 남성 측이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고,양측의 부모에게 인사를 한 후에 Marriage agency를 탈퇴하는 흐름이다.

남녀의 관계가 있다면 그 이후가 된다.

어디까지나 남성 측의 결의가 시험되는 구조이다.

또한, Marriage agency의 경우에는 남성 회원과 여성 회원에게 각각 담당자가 지원하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이유는 남성 중에는 결혼 의사를 전하며 그것을 빌미로 남녀 관계에 접근하려는 악질적인 사례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자신의불안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남성 측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면에서도 매칭 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금액이 되므로 입회하는 남성도 그만큼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진지하게생각하여 입회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심리로서는 그렇게 모든 조건을 클리어한 남성이므로 믿을 수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되어 여성 측에도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생기지만, Marriage agency로의 입회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러 외국에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는 온라인으로의 왕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에 결혼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많고, 남성 중에는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계기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남성도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성의 경계심이 얼마나 높은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본 여성은 청결감의 결정체이다.

일본 여성은 청결감의 결정체이다. 같은 일본인인 나조차도 그녀들의 청결감에 놀란다.

그 배경에는 일본의 생활 습관, 식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내의 레스토랑에 가면, 가게에 들어서면 대개는 물과 '오시보리'가 나온다. 일본어로 '오시보리'는 wettowel을 뜻하며, 식사 전에 손을 닦기 위해 제공되는 적셔서 가볍게 짜낸 작은 타올이다.

해외에서도 간단한 wet towel을 제공하는 나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청결하고 40도에 가까운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이 서비스로 제공되며, 그 자체로 요금을 받아도 좋을 만큼 위생적이고 정성스러운 서비스 문화가 있다.

여름철 더운 시기에는 청결한 '오시보리'로 손을 닦거나 얼굴을 닦아 청결한 상태로 식사를 한다.

어쨌든, 위생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여성의 경우도 당연히 위생에 민감하다.

먼저 위생 면에서 일본에는 '샤워 변기'가 보급되어 있다. 일본 내에서 거의 모든 곳에 보급률이 있으며, 공중 화장실조차도 위생적인 샤워 변기가 완비되어 있다. 이만큼 위생 면에서 철저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집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습관이나 '오시보리'의 습관, 하루에 두 번, 아침저녁으로 Japanese bath에 들어가는 습관, 샤워 변기 등, 어쨌든 위생 면에서 철저한 국민성이 있다.

일본 남성도 다른 나라에 비해 청결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일본 여성의 경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생 면에서 철저하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Marriage agency의 경우도, 나 자신이 그녀들의 matchmaking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 교제를 희망하는지 여부의 첫 번째 기준이 남성의 청결감이 느껴지는지 여부, 그것이 최대의 포인트가 된다.

물론 서로의 궁합이나 인간성은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청결감이 느껴지지 않는 남성의 경우 거의 100%, 일본 여성은 떠난다.

그 이유의 많은 부분이 남녀의 육체적 관계에 있다고 그녀들은 말한다.

나도 평소에 그녀들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일본인이라도 조건이 좋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청결감이 없는 남성과의 섹스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일본 여성에게 남성에 대한 청결감은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 「kawaii」 문화

일본 여성에게는 'kawaii' 문화가 있다. 영어로는 cute로 번역되기도 하며, 그대로 'kawaii'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일본 여성의 인식으로는 일반적인 cute가 아닌,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귀여운 것을 보고 'kawaii'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예를 들어 근육질이고 강한 이미지의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먹고있으면, 일본 여성의 눈에는 그 광경이 'kawaii'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남성이 평소에는 정장 차림만 보던 경우, 그 남성이 센스 있는 사복을 입고 있으면 'kawaii'라는 표현이 된다.

단순히 cute라기보다는 일상의 갭(차이)에 대한 감각에 'kawaii'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일본 여성의 특성으로 말하자면, 이 'kawaii'라는 말을 누구나 소리 내어 발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보고 그곳에 세 명의 일본 여성이 있다면, 세 명의 여성이 입을 모아 'kawaii'라고 말한다. 기쁜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일본여성의 문화가 되어 있다.

외국 남성에게는 조금 이상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청바지에 셔츠 차림만 보던 남성이 어느 날 멋진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 일본여성은 그 갭의 차이에 놀라 'kawaii'라고 표현할 경우가 있다.

또는 그 남성의 처음 보는 행동이나 제스처를 볼 때도 'kawaii'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가졌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본 여성만의 문화를 알아두면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으며, 일본 여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제4장: 외국인 남성에 대한 인상과 선입견

■식문화 및 생활 습관의 차이와 체취의 장벽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자세히 전하고 싶다. 일본 여성이 상상하는 외국인 남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언어의 장벽이나 문신으로 인한 경계심 및 의심심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했지만, 일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고려할때, 식문화나 생활 습관의 차이와 외국인 특유의 체취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이혼률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 즉, 결혼 후에는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일본 여성의 생각이다.

그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이 식문화와 생활 습관의 차이와 체취라는 것이다.

먼저, 식문화와 생활 습관인데, 연애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로서의 일상 생활이 이어진다.

이때 걱정되는 것은 식문화나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는 일본 여성이 많다.

일본인은 연애와 결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더라도 이 남성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일본여성에게 공통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음식 문화와 생활 습관의 차이는 서로가 외국인인 이상, 서로에게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남성 측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일본 여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후에 안심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남성의 체취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여성은 청결감의 덩어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체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인 자체가 체취가 적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본의 음식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음식 문화에는 먼저 일본 음식이 있다. 옛날부터 발효 식품을 먹어왔던 문화가 있고, 매우 건강하다.

된장이나 간장, 두부와 같은 것들은 식물인 대두로 만들어진 재료로, 지금은 전 세계에 건강 식재료로 널리 퍼져 있다.

또한, 일본인은 생야채를 먹는 문화가 있으며, 특히 일본 여성은 생야채를 '샐러드'로 먹는 사람이 많다. 물론, 고기나 생선도 좋아하지만, 고칼로리의 음식은 피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일본에는 '편의점'이나 '쇼핑 센터'가 많이 존재하지만, 식품 코너에 가면 많은 식재료에 칼로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식재료를 먹으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지.

일본 여성의 경우, 그 정도로 의식해서 식재료를 사는 것이다.

즉, 건강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은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식재료를 즐겨 먹는 것으로 체취가 적고, 여성의 경우 더욱 체취가 없다.

서양 문화에서는 '체취 숨김'에서 향수가 보급된 역사가 있지만, 일본 여성도 향수는 사용하지만, 그 이전에 체취 자체가 없기때문에 본래의 '체취 숨김'이 아니라, 멋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체취가 없는 일본 여성에게는 외국인 남성의 조금의 체취도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남성의 경우도 건강한 식생활로 체취가 적은 사람도 있지만, 고칼로리를 좋아하는 남성의 경우는 역시 체취가 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여성에게 외면 받게 된다.

외국인 남성의 경우, 일본과는 다른 음식 문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육식을 좋아하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것은그 나라의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식을 주로 하는 식생활로 인해 그것이 그대로 체취가 되어냄새에 민감한 일본 여성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체취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누구에게나 있다.

일본 여성도 전혀 체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체취가 적다.

그래서 자신 이외의 사람의 체취가 거슬리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체취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지만, 다만, 일본 여성의 경우 체취를 매우 의식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일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서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후와 같은 미래의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는 부부가 되므로,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남성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본의 외국인 고용은 매우 적다. 일본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구조가 있으므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언어나 관습의 차이로 취업에는 상당히 엄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남성이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남성이 어떻게생계를 꾸려 나갈 것인지?

그곳에 계획성이 있는지?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일본 여성은 그곳에서 불안을 느낀다.

미래의 일은 부부가 되고 나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본 여성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물론 어떤 경우든 미래의 일은누구에게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계획성, 전망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필요불가결하다.

결혼 후 미래에 남성이 모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본에서의 생활을희망하는 일본 여성에게는 불안할 따름이다.

게다가 남성이 외국인인 경우, 노후의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결혼 전에 명확하게 확인해두고 싶다는 것이 여성의 본심이다.

그 외에도 '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을 일본의 여성은 의식하고 있다. 양육권의 법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경우, 그 후에 이혼이 발생한다면 일본의 법률에서는 '단독 양육권'이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국제 결혼이었던 경우, 남성 측의 나라에 따라서는 법률로 '공동 양육권'이 되어 있는 나라도 많다.

과거에도 일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 결혼에서 처음에는 화목한 부부 관계였지만, 이혼 후 남성이 모국으로 귀국할 때, 이혼한 일본 여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자녀를 데리고 그대로 모국으로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 남성이 여성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자녀를 데리고 귀국한 경우, 일본의 법률에서는 범죄에 해당하며, '유괴'로 간주되지만, 남성 측이 자녀를 모국으로 데려간 후에는 그 나라에서 '공동 양육권'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으려 해도, 해외의 법원은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

즉, 결혼 초기에는 행복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때 자녀가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녀를 되찾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본 여성은 알고 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 남성의 인간성이나 배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남성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국제 결혼의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외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에서의 국제 결혼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혼률의 높음으로 인해 여성은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불안을 교제 단계에서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냐는 남성에게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양측의 가족 관계, 남성 측의 부모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의식하다

결혼은 서로의 이해와 합의만으로 혼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일본 여성은 결혼할 때, 남성의 부모의 존재를 의식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법에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호적'이라는 것이 있고, 이는, 태어난 출생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존재한다. 혼인을 기회로, 여성이 남성의 호적에 들어가면서, 성씨(라스트 네임)이 남성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 흐름은 여러 외국에서도 같은 곳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결혼을 할 때, 여성이 남성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이 남성 측의 패밀리가 될 것을 약속하는 의식이 있다.

그때 불안해지는 것이, 남성의 부모와의 관계이다. 단순히 인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여성의 경우, 남성의 부모를 소중히 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성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남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잘 풀릴 것인지, 그런 곳을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는, 어느 나라건간에, 남성의 부모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모로 불안이 커진다. 언어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로, 남성의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미래의 불안은 반드시 있다.

외국인 남성은, 그런 곳에도 배려가 필요하다.

가령, 연애 목적의 경우라도, 그 여성이 결혼할 나이에 있다면, 여성 심리로서는 교제의 결혼을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교제가 목적이었다 해도, 결혼을 의식할 정도의 배려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정도의 배려가 보장되어, 그래서 처음으로, 교제에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행동 스타일은, 자란 나라의 문화나 습관에서, 생각이나 가치관이 형성된다. 자신은 올바른 접근이라 생각하더라도, 나라가 다른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만약에, 상대의 문화나 습관을 무시한 접근을 했다면, 거기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해도, 양측의 관계는 잘 풀리지 않는다.

거기에, 좋고 나쁨은 관계 없이, 접근하는 쪽이, 그만큼의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한다. 그 정도의 것이 가능해져야, 일본 여성은 외국인 남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의 감각 차이가, 결과적으로, 일을 어렵게 만든다. 일본 여성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문화나 습관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일본인을 알게 되고, 일본 여성의 습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나 습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이 매뉴얼이나, 구매자에게 제한된 '메일 지원'의 최대의 장점은, 일본 여성과의 '약간의 감각 차이'를 이해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를 이용해 일본에 대해 공부했다 하더라도, '감각 차이'는 몸에 배지 않는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가지며, 어떻게 관계를 깊게 해 나갈 것인지는, '감각 차이'를 몸에 배우는 것이 최단 최속이다.

같은 일본 남성이라도, 여성과의 관계에서 '감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 남성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고, 결혼도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남성이라도, 일본 남성이라도, 거기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민을 받아들이지않는 정부의 방침이 있지만, 어느 나라의 외국인 남성이라도,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정식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있다.

그렇다면, 경험과 실재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관계를 깊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일본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

여기에서는 일본 여성에게 접근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일본 여성의 경계심을 없애는 방법과 여성에게 다가가는 개선점입니다.

1、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부터 시작

전달 드렸듯이, 일본 여성은 청결함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체취에 민감합니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접근도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 일본 여성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체취에 관해서는 식생활의 영향이라고 전달 드렸지만, 먼저, 마음에 드는 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갖고 싶다면, 또는 이미 접점이 있지만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싶다면, 먼저 식생활부터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본 남성의 체취는 다른 나라의 남성에게 비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음식 문화가 다른 다른 나라의 외국인 남성의 체취는 일본 남성보다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남성의 경우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현실에는 육식주의 외국인 남성이 많기 때문에 식생활을 개선하고 채식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특히 '잎채소'는 체취의 급격한 개선에 도움이 되며, 반대로 양파, 마늘, 감자와 같은 '뿌리 채소'는 체취를 강하게 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생채소가 아니어도 삶은 채소도 효과는 같습니다.

빠른 사람은 이주일 정도면 체취가 개선되므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없도록 전달 드리자면, 일본 여성과의 관계 구축에서 계속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가질 때 첫 입구로서 식생활을 개선해 체취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습성으로는 한번 남녀의 거리가 가까워진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 약간의 체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는 여성에게는 눈앞의 남성이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체취가 후각으로 민감하게 됩니다.

저도 지원 단계에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상담을 받지만, 그곳에 눈치채지 못한 외국인이 많습니다. 남성 자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일본 여성은 입에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수건」은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일본인의 특징 중 하나로 '손수건'을 들 수 있다. 일본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일본인의 경우,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타국과는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유럽에 살았던 적이 있다. 유럽 사람들도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다만, 일본인과 다른 것은 그 사용 방법에 있다.

여러분도 겨울의 추운 계절이 되면 콧물이 나올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근무하던 현지 법인의 동료였지만, 아름답고 멋진 여성이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손수건을 꺼내 콧물을 처리했다.

처리한 손수건은 그대로 말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용도로서는 틀림없지만, 습관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나도 놀랐지만, 그런일이 있었다. 유럽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놀랐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것이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콧물이 나올 경우, 대개는 휴대용 티슈를 사용한다. 그럼 일본 여성은 손수건을 어디에서사용하느냐 하면, 눈물이 날 때 사용하는 정도로, 그 외에는 아름답게 접어서 항상 가지고 다닌다.

대개는 유명 브랜드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여성의 경우, 혼자서 10장이나 20장도 항상 준비해두고있는 여성이 많다. 게다가 구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일본 여성에게 있어서의 '손수건'의의미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손수건'을 사용하지만, 어찌 보면 일본 여성으로서의 '단정함'의 인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출지에서 화장실에 갔을 경우에도, 일본의 상업 시설의 공중 화장실은 매우 위생적이어서, 손을 씻은 후의 처리는,비치된 '손 씻기 전용 페이퍼'가 있어서, 거기에서 손수건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장소에 따라서는 공중 화장실에도 불구하고, '손 씻기 전용 페이퍼'가 아닌, 열풍으로 손을 말리는 최신 설비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다.

어쨌든 위생 면에서는 세계 일인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일본의 문화, 습관에서 온 것이지만, 왜 외국인 남성에게 '손수건'의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일본인의 다수는위생적이며, 청결을 좋아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국적의 남성 문화나 습관을 모르는 일본인이 많다.

즉, 외국인 남성의 생활 습관이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곳에 의심이 생긴다. 자신과는 다른 생활 습관이 있을것이라고 선입견으로 사물을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처럼 위생적인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외국인 남성은 일상적으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여, 일본 여성에게는 청결을 좋아하는 남성임이 전해진다.

많은 외국인 남성들은 호의를 가지는 여성에 대해 에스코트하는 배려가 가능하지만, 일본 여성에게는 그것도 어필 포인트이기는하지만, 그보다 더 청결감이 있는 남성인지, 위생적인 남성인지, 그 쪽을 의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3、 대화를 할 때는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의 "단어"만을 사용한다.

일본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언어의 장벽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일본어 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어느 나라이든 공용어 외에도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국민이 많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영어공부를 하는 일본인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말을 걸리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길을 묻는 경우나, 마음에 드는 여성과의 접점을 갖고 싶은 경우도, 일본어 외의 언어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본 여성에게는 공포가 되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일본어의 "단어"이다.

일본어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외국인은 드물지만, 단어만이라도 외우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단어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첫 접근 방법이 되어 일본어의 단어가 나오기만 해도, 일본 여성의 경계심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すみません(실례합니다)", "初めまして(처음 뵙겠습니다)", "私の名前は〇〇です(제 이름은〇〇입니다)", "今、日本で仕事をしています(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旅行で日本に来ました(여행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ありがとう(감사합니다)"

와 같이, 그 상황에 맞는 몇 가지 일본어가 먼저 나오기만 해도 일본인은 안심한다. 그 후의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후에는 몸짓과 손짓의 제스처만으로도 대화가 분위기가 더해진다.

"일본어로 먼저 말을 걸어줬다"는 인식이 일본인의 경계심을 풀어준다.

일본 여성과의 접점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일본어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먼저 언어의 장벽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4. 일본 여성과의 접촉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경계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 역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외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에게 접근하는 경우, 대부분 처음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경을 알수 없는 남성에게 대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말을 걸면 불안해하고, 어떤 순간에는 일본 여성이 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멀어지는지에 대해묻는다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만난 관계라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 명의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만나는 외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도 "난파"로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남성이 가벼운 시각으로 여겨져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커뮤니티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특정 커뮤니티의 장소"란,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이나 대학 동아리, 또는 취미와 같은 "수업"도 특정 커뮤니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일본 여성의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이라면, 일본 여성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커뮤니티 장소에 참석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한 해외거주 중인 외국인 남성이 일본 여성과 접촉을 원한다면 현재는 온라인 커뮤니티 장소가 많이 있으므로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해당 장소를 찾고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일본 여성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이 이전에는 일본 요리 전문 요리 교실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만난 일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경계심이 없었으며, 언어 장벽이 있더라도 관계가 정상적으로 구축되었고, 곧 연애로 이어져 결혼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일본 여성이 외국인 남성에게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리 교실에 간 외국인인 먼저요리 교실에 가입하게 됩니다.

요리 교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남성의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교육 단체 측은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파악한 사람만이 요리 교실에 다닐 수 있으므로, 같은 요리 교실에 다니는 일본 여성들에게는 그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알지 못해도 교육 단체가 신원을 파악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외국인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처음 접근부터 관계는 원활합니다.

음식점에서 여성에게 접근한 남성과 요리 교실에 다니는 남성이 같은 사람이었더라도 여성에게 주는 인상은 크게 다릅니다.

이것은 처음 접근 방법에 따라 일본 여성과의 관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대화에서 가능한 한 남성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외국인 남성에게는 일본 여성의 경계심을 덜기 위해 가능한 한 남성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남성의 신분이보이지 않으면 남녀 간의 관계가 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신분입니다.

어느 나라 출신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나요? 또는 일본에 왔을 때 어떤 목적이었나요?

직장이나 여행이었나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요?

일본 여성들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을 고려하는 외국인 남성의 경우, 어떤 직업을 하고 있으며 그 직업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정보도 일본 여성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외국인 남성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여성과의 교제를 시작하기 직전이 효과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결혼 후의 생활 수준과 장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의 진지성이 시험 받을 것입니다.

결혼을 원하는 일본 여성에게는 사랑 표현만으로는 반응이 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일본 여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는 일본 여성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또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노후 연금 문제 등을 미리 정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일본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젊은 세대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현재보다 연금지급 연령이 올라가고 연금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많은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일본에서 일하는 일본 남성에게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는 정도이므로, 외국인 남성의 신분을 보이지 않는 노후 및 연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일본의 결혼 중개업체가 일본 여성에게 호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남성 회원의 직업과 연봉이 처음부터 공개 정보로 여성 회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매칭 앱의 공개 정보는 자체 신고일 수 있지만,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공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므로 일본여성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안심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키기 위해 여성 자신이 선호하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남성의 진지성이 여성에게 전해집니다.

그러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남성 측이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래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이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긴 인생 동안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한다면 남성 자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6. 애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일본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연애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의식이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일본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이성이나 동성 상관없이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 안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키스도 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이라면 감각이 일본 사람에 가까울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일본 여성은 꽤내성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과 같이 일본 사람의 경우 피부가 닿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이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 인사 정도로 안을 때, 일본 여성은 그것만으로도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외국인 남성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예의를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피부와 닿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의 문화로 간주됩니다.

일본 여성에게는 키스뿐만 아니라 안도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관계에서 육체적 관계가 있는 남녀라면 키스나 안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닌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크게 발전한 경우에도 서양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키스나 안을 하길 원하지 않으므로, 남성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법을 잘못하면 "강압적인 남성일지도?" 라고 생각되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내가 알기로 일본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경계심이 높은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계심이 높을지라도 진심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여성에게 전달됩니다.

사람의 심리적으로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지 문화나 습관이 다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때라는 것은 말로는 아니라 자신 자체의 상대에 대한 태도, 진심,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무엇이든 자신의 생각이 진심이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남성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앞의 상대방의 마음을 agpwm,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과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요약

이 매뉴얼에서는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한 데이트 매뉴얼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 활동이 외국인 남성에게는 약간의 감각 차이나 습관의 차이 등 학습할 정보가 많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감각 차이나 차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매뉴얼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이메일 지원이 제공됩니다.

일본의 문화, 습관, 또는 국민성과 같이 안전 및 위생 면도 포함하여, 일본은 훌륭한 나라이며 거기 사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도 다른 국가에서 배울 점이 많으며, 앞으로도 이해와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도 매력적인 여성이 많다는 사실 역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매력적인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많은 분들이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여성을 좋아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매뉴얼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동시 출시되지만, 언어로는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 한국어 버전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대상 언어는 3개 언어이지만, 이메일 지원에서는 여러분의 공용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일본인 여성과의 관계를 실현하고 싶으신 분이나, 앞으로 일본인 여성과의 접촉을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전문 상담사가 지원해 드립니다.

매뉴얼과 이메일 지원을 모두 활용하시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Attractive Style Co., Ltd.,

대표이사, 심리 상담사."

Kazumi Takayama